

# 박광태 시장 불출마

## ■향후 행보는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한 박광태 광주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원 3선과 시장 재선의 화려한 정치 경력, 거기에 막강한 지지기반이 그를 거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 7~8월 전당대회, 10월 재보선,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잇따르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3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장에는 박시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200여명의 보도진이 몰렸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민 애정 보답하는 어떤 일이든...”

7월 보선 통한 국회 진출 일단 유력  
광주시장 경선 ‘킹 메이커’ 役 가능성  
민주당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진출설도

박 시장도 18일 기자회견에서 “남은 일기 동안 시정에 전념하고 그 이후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광주와 국가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해 향후 거취에 대해 여운을 남겼다.

더욱이 이날 기자회견문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였다. 그는 이 의미에 대해 “별다른 의미는 없다. 다만, 20년 간 국회의원과 시장으로 최선을 다해왔고, 이제는 이와는 다른 보람 되고 새로운 일을 하

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으나 정치적 행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우선 눈 앞에 다가온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 시장이 ‘킹 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불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17일 후보군 중 한 명인 강운태 의원과 오찬을 함께해 강 의원을 지원할 것 이란 관측을 낳게 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강 의원에게 “시민 여론을 보면 차기 시장은 당신과 나 둘 중 한 명

이 유력한데 나는 시민배심원제가 부당하기 때문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강 의원에 기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어느 특정 후보와 연계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 9단’ 박 시장의 발언을 끈이끈대로 믿는 정치인은 없는 듯하다.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 진출설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대표 또는 최고위원에 도전할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금은 (시민들의)애정에 보답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계획은 없다”며 직답을 피했지만 그동안의 인원과 오찬을 함께해 강 의원을 지원할 것을 고려할 때 가능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관측은 박 시장이 국회 진출을 노린다는 것. 이날 현재 국회의

원 보궐선거는 광주 남구나 광산구를 지역에서 가능하다. 강운태 의원이 민주당 시장 후보가 되면 남구, 이용섭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광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때문에 박 시장이 두 의원 중 한 명을 적극 지원한 뒤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 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불출마 선언 하루 전에 가진 강 의원과의 오찬은 지역정가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광산울의 경우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의원과 단일화를 하면서 향후에도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

반면, 남구는 강 의원의 아성으로 강 의원의 지지를 받으면 국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 이번 경선에서 강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지역정가에서 평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시장 8년, 광주 어떻게 바뀌었나

자동차·가전·광산업 기반 구축  
소비도시서 생산·문화도시 도약

박광태 시장이 이끈 민선 3·4기 광주는 소비도시에서 생산·문화도시로 도약한 시기로 요약된다.

그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기아차 생산능력 증가와 삼성 백색가전 이전을 이끌어냈고, 광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아 첨단 일대를 R&D특구로 지정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도 박시장이 공들인 역점 사업이었다.

‘일하는 시장’으로서 광주 발전의 큰 획을 그은 박시장의 성과를 살펴본다.

◇광주 산업지도 완성=2002년 박 시장이 시장에 취임했을 당시 광주의 산업체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뿐이었다. 2001년 광주시의 수출액은 31억 달러 정도로, 이 역시 기아차 광주공장 때문에 가능했다. 박 시장은 취임 초기 광주시의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가전산업과 함께 이제 막 싹을 틔운 광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자동차 생산대수가 지난 2001년 18만대에서 지난해 46만대, 가전사업 매출액은 1조3천억원에서 7조5천억원, 광산업 관련 업체 매출 역시 1천100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성장했다.

화를 생산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 발전소로 만들겠다”고 한 박시장의 약속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를 잡은 ‘광주 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의 개최, 구도심 내 영상복합문화관·빛고을시민문화관 등의 건립도 문화 관련 치적이다.

◇녹색성장·고령화시대 선도=광주시의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증심사지구 환경복원 사업,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은 지역 내·외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전한 부지에 금남로공원을 조성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90개의 공공기관 및 대학 등과 ‘광주그린엑션’을 체결한 것도 시대를 앞선 시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1천만 그루 중 800만 그루가 광주 곳곳에 식재됐으며, 무려간 건축물로 뒤덮였던 증심사지구는 자연과 생태를 고려해 새롭게 조성됐다. 무등산 옛길을 복원해 광주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고,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난 광주천에는 최근 수 달이 나타날 정도로 수질이 깨끗해졌다.

◇예산 3조원 시대 개막=지난 2001년 광주의 국비 지원액은 4천51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그 5배에 육박하는 2조2천563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재정규모도 최초로 3조원을 넘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광동산업단지 진입로·제2순환도로 개통을 통해 도시 도로망이 완성됐으며, 제3순환도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노선 연장, 도시철도 2호선, 북부순환도로,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 등도 추진되고 있다. 제도전 끝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해 낸 것도 그의 독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불출마 선언 일문일답

# “저 한명 희생으로 부당한 공천 고발”

박광태 광주시장이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2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시장은 ‘아름다운 퇴장’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10여 분간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광주시민이 아닌 외지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에 의한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광주의 수처’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이미 지난 설 연휴 기간 집사람과 의논해 외지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제가 도입되면 불출마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현직 시장이 시장 한 번 더 하겠다고 광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지인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경선 방식에 대한 부당성을 민주당 중앙지도부에 전달한 적이 있다.

▲최근까지도 정세균 민주당대표에게 경선방식을 시민(50%) + 당원(50%)으로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배심원단이라도 모두 광주시민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

표가 이 같은 주장의 정당성은 인정했으나, 나중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마음을 접었다.

- 공천 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인가.

▲외지인이 포함된 시민 배심원제도는 사실상 특권이나 세력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며, 이 같은 공천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하고 싶었다. 이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다. 광주시민은 민주시민이며 정치감각이 가장 뛰어난 시민으로, 광주시민이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저를 희생함으로써 그것을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

- 선거 후보가 아닌 행정책임자로서 선거를 맞게됐는데.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도 선거 관리 책임자로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오로지 행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 이제 선거법에 저촉될 일도 없기 때문에 지인과의 자유롭게 만나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 오사카 직항

JINAIR

광주MBC문화탐방

예약문의 : LAND BANK(랜드뱅크)여행사 | 02-225-3335 FAX 02-225-3335, 02-225-3336